

“큰 일 해냈다” 여수 전역 환영 물결

여수공항 농악·악대 공연 축제 분위기 盧대통령 北에 유치 지원 감사 메시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한 전남대표단이 돌아오자 개최도시인 여수는 시내 전역이 이들을 환영하는 축제에 흠뻑 빠졌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 등 전남지역 대표단 100여명이 28일 오후 2시에 여수공항에 도착한 이후 여수시내는 시민들의 환영 물결이 시가지지를 뒤덮었다.

이날 여수시가지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나와 환호하며 10년의 각고 끝에 여수엑스포 유치가 성공한 대표단을 맞았으며 전남도청 직원들도 엑스포 유치에 큰 역할을 한 박준영 지사를 뜨겁게 맞이했다.

○여수 시민 1천여명은 이날 오후 대표단이 도착한 여수공항에 나와 “박준영” “오현섭”을 연호하는 등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날 여수공항에는 읍촌 두레농악단과 여수공고 악대가 공연을 펼쳐 축하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후 여수시청 정문에 도착한 대표단은 시민들이 준비한 꽃 목걸이 선물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12발의 축포와 함께 여수시립국악단의 힘찬 모듬공예가 대표단을 맞았다.

대표단은 이어 여수시청 앞에 마련된 별도의 환영행사에도 참석했으며, 박 지사와 오 시장은 즉석 연설을 통해 “2012 여수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한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마중 나온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은 뒤 국민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환영객들은 유치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 피켓, 엠블럼기 등을 흔들며 대표단의 입국을 환호했고 이어, 화동들의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과 함께 대표단의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여수시내 곳곳에는 세계박람

회 유치를 기념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10년의 숙원을 달성한 감동과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수시청 앞 로터리 주변에는 ‘경사났네 여수시민, 우리 모두 기뻐하세’ ‘오늘은 기쁜 날 여수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10여 장이 곳곳에 걸렸다.

○전남도청 전 직원들은 여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박준영 지사가 이날 오후 5시에 헬기편으로 남악신도시 전남도청에 도착하자 일손을 잠시 멈추고 1층 로비에 집결, “박준영”을 연호하며 따뜻한 환영을 펼쳤다.

환한 얼굴로 직원들 앞에 선 박 지사는 “해양강국을 만들어 후대들에게 풍요로

운 나라를 물려주자”고 강조했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는 “2012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축하패”를 전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2012 여수박람회 유치를 지원해준 데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중인 김장수 국방장관이 전날 회담 기조연설에 앞서 노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하고 귀국하는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 나온 여수시민들이 28일 오후 여수공항에서 플래카드와 피켓, 태극기 등을 흔들며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주영 올림픽, 정몽준 월드컵, 정몽구 엑스포 유치 현대家 3부자 ‘트리플 크라운’

현대(家)의 3부자가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엑스포 유치 주역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현대에 따르면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88서울올림픽 유치에 공헌을 한 데 이어 아들인 정몽준 의원이 한일월드컵 그리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공을 세워 ‘트리플 크라운’ 신화를 이뤄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은 88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유의 독심으로 밀어붙여 일본 나고야로 기울었던 상황을 뒤집고 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다.

이후 아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은 2002 한일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어 일본 나고야로 기울었던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성과를 따냈고 월드컵 4강 신화를 맞 보기도 했다.

이후 현대(家)의 장자인 정몽구 회장은 여수엑

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정몽구 회장은 1999년에 2010년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아 총력전을 펼쳤지만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명예유치위원장으로 다시 위촉된 정 회장은 그룹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유치전에 다시 나섰다. 결국 27일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라는 선물을 품에 안았다.

정 회장은 속칭 ‘현대비자금 사건’이 마무리된 지난 4월부터 6개월여간 지구 3바퀴를 돌며 정력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정회장은 지난 4월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번 출장길에 올랐다.

현대 관계자는 “현대가 일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으로서 국가 대사인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이번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현대가 3부자가 트리플 크라운을 이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엑스포 계기 남해안 세계적 관광지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 귀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전남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을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프랑스 파리발 에어프랑스 AF20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한덕수 총리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치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낙후된 남해안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해안지역을 명물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우리과 경쟁한 모로코,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 여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 노무현 대통령,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유치위원회, 재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는 10여명의 여수시민들이 몰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힘센 한덕수 총리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한 총리를 반겼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시·도 상생 발전 기회”

박광태 광주시장 “성공 개최 위해 적극 지원”

박광태 광주시장이 28일 2012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과 엑스포 개최에 따른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과 도지사가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인도·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및 시장개척단 활동 보고회에 앞서 “여수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여수엑스포 성공을 시·도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박준영 전남지사와 협의를 통해 여수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엑스포의 성공은 여수 발전은 물론이고 전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남의 발전 효과는 광주에까지 미쳐 시·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수엑스포가 열리는 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는 등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의 기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수엑스포에 참가하는 내외국인이 문화수도 광주를 찾을 경우 숙박·관광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수엑스포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보다는 의미있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시와 광주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신용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모두 24건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역에서 댄 사람들

광주·전남 지역인사들과 기업인들도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 쏟았다.

지역인사들은 정부와 중앙유치위가 외교전에 치중하는 사이 지역사회의 엑스포 개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성공을 모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큰 보탬을 주었다.

지난 2004년 11월 남해안권 인사 600여 명으로 구성된 ‘2012세계박람회지방유치위원회’의 노진영 위원장은 ‘2012도전 기네스퍼즐대회’, ‘트윈전국사이클 투어’ 등 특색있는 이벤트를 추진해 전국민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 15억여 원의 민간 모금을

노진영 위원장 각종 이벤트로 국민 관심 유도

김철신 집행위원장 적극적인 모금·홍보활동 전개

지역기업인들 성금 기탁 물심양면 지원

통해 국내 홍보활동에도 주력했다.

김철신 지방유치위 집행위원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활동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발로 뛰며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헌신했다.

노진영 위원장과 김철신 집행위원장은 박준영 전남지사 등과 함께 세계박람회

기구(BIE) 회원국에 대한 유치교섭활동에도 적극 나서 마침내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이끌어 냈다.

지역기업들도 물심양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6억원의 성금을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탁했다.

또 금호산업, 동광건설, 보해양조, 남양



노진영 위원장 김철신 집행위원장

건설, 보성건설, 금광기업, 건설공제조합 전남도회 등도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성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남화토건, 전문건설협회 전남도지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광주은행, 중흥건설, 남해건설, 동아기술 등도 성금을 기탁해 지방유치위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2012 Yeosu Expo, featuring a grid of images and text for various exhibition areas and ticket information.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expo's location, dates, and ticket prices for different categories.